

태국의 에이즈 예방 현장을 다녀와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폭발적 증가 억눌러

- ▶ 매춘산업에서 100% 콘돔사용 의무화
- ▶ 에이즈 예방 사업에 기업체를 끌어들이 다방면 연구

1984년에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태국은 매춘산업,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재까지 1백만명이 넘는 감염자/환자가 발생하여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간단체, 국민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그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한국에 비해 검사, 상담, 예방, 홍보가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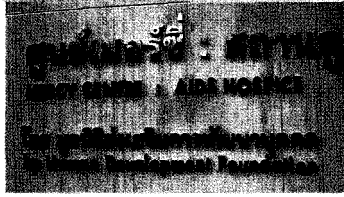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매춘산업에서 100% 콘돔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획기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방콕 시내 빈민지역 에이즈 예방교육에서 본 것처럼 아직 성교육도 받지 않은 아주 나이 어린 아이에게도 언

제 에이즈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콘돔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들이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에이즈퇴치를 위한 태국기업연합',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태국적십자사 에이즈연구센터', 말기환자들이 마음 편히 쉬었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요양쉼터' 및 '국립감염질환 병원' 운영 등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에이즈 대응전략을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더 감염인과 일반인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에이즈 관리 체계의 확립이 요망된다. (편집실)

머시센터

머시센터는 미국인 신부 Joe Me-yer 가 창설한 호스피스 센터로 9년 전부터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에이즈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옆페이지) 머시센터(Mercy Center)에서 식사중인 에이즈 어린이들.



TBCA

TBCA(에이즈퇴치를 위한 태국기업연합) 간판. 1993년 설립된 효과적인 HIV/AIDS 관리를 위한 기업, 정부, 비정부 기관의 연합체이다. 100여 개의 태국 기업과 국제 기업이 가입해 있다.

THAILAND
BUSINESS
COALITION

AIDS



웬즈데이 프렌즈 클럽

(맨 왼쪽) 감염인 모임인 웬즈데이 프렌즈 클럽의 회원(남)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회원(여) 기정을 방문했다.

(왼쪽) 웬즈데이 프렌즈 클럽에서 자원봉사자가 머리를 손질해 주고 있다.

(아래) 웬즈데이 프렌즈 클럽(WFC) 사무실을 방문했다. WFC는 감염인을 지원하는 태국 최초의 감염인 모임으로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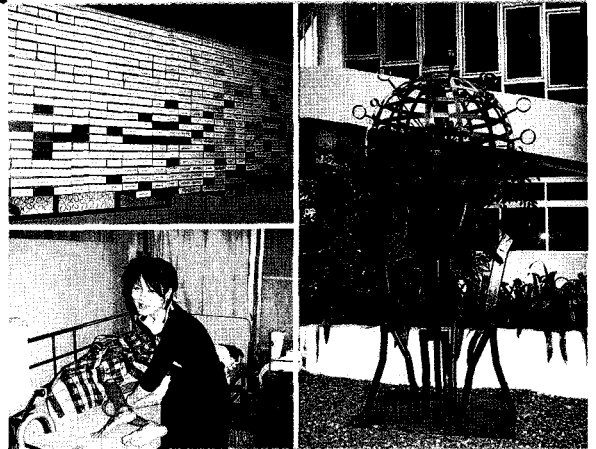
요양쉼터

요양 쉼터는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Lopburi에 위치한 불교사원으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쉼터이다. 92년 이 사원에서 불교 승려들이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했다. 중환자를 위한 250개의 병상이 있고 초기 감염인을 위한 500여개의 1,2인실이 있다. 누구나 무료로 진료와 간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위) 요양소에서 사망한 사람들. 유골을 뿔아 서랍식으로 보관한다.

(오른쪽) 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맨 오른쪽) 요양소의 감염인이 만든 지구 모형.



(맨 왼쪽) 국립병원 안에서 감염인 어린이와 간호사 상담원.

(왼쪽) 빈민가에서 에이즈 교육을 받는 현장. 에이즈 감염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염예방법을 교육하는데 어린이가 남성 음경 모형으로 콘돔 사용법을 익힌다.(맨 오른쪽 아래)

